

- **주요 뉴스:**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속 영 군사지원 확대, 유가 상승세 지속 등
 - 미·이란 전쟁 장기화, 연준 통화정책 기대의 급격한 재조정 촉발
 - 스페인, 이란 전쟁發 에너지 충격 대응 50억유로 규모 지원책 발표
 - ECB 정책위원 나겔,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시 4월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
 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이란 전쟁 지속, 유가 상승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 - 주가 하락[-1.5%], 달러화 강세[+0.3%], 금리 상승[+13bp]
 - **주가:** 미국 S&P500지수는 이란 전쟁 장기화 리스크 등으로 하락
유로 Stoxx600지수는 高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1.8% 하락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상승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2%, 0.9% 하락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 금리인하 기대 후퇴 등으로 급등
독일은 물가 억제를 위한 ECB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8bp 상승
- ※ 뉴욕 1M NDF 증가 1,504.6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,506.0원. 0.36% 상승). 한국 CDS 상승

		3/20일	3/19일	전일대비			3/20일	3/19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6,506.5	6,606.5	-1.51%	국채 금리 10y	미국	4.38%	4.25%	+13bp
	유럽	573.28	583.64	-1.78%		독일	3.04%	2.96%	+8bp
	중국	3,957.1	4,006.6	-1.24%		영국	4.99%	4.84%	+15bp
	일본	53,373	53,373	+0.00%	CDS 5y	한국	34bp	30bp	+4bp
	한국	5,781.2	5,763.2	+0.31%		중국	52bp	47bp	+5bp
환율	달러지수	99.50	99.23	+0.27%	위험 지표	EMBI+	287	286	+1bp
	유로화	1.1572	1.1589	-0.15%		VIX	26.78	24.06	+11.31%
	엔화	159.23	157.73	-0.94%		WTI유	98.32	96.14	+2.27%
	위안화	6.9036	6.8909	-0.18%	원자재	구리	534.3	543.3	-1.67%
	원화	1,500.6	1,501.0	+0.03%		금	4,492.4	4,650.0	-3.39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속 英 군사지원 확대, 유가 상승세 지속 등

- 미국은 강습상륙함 USS Boxer 및 해병원정대(약 2,500명)와 호위함을 중동에 추가 파병하기로 결정. 이란 본토 또는 카르그섬 상륙 가능성도 검토 중이나 최종 결정은 미정. 트럼프 대통령은 NATO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협조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
- 독일·영국·프랑스·이탈리아·네덜란드·캐나다·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향행을 위한 공동 노력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나, 독일 메르츠 총리 및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교전 종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
- 이스라엘은 테헤란 내 무기 생산시설 및 탄도미사일 저장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2차례 실시. 이에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최소 7차례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였으며, 텔아비브·예루살렘 일대에서 요격음이 다수 관측
- 이란 혁명수비대는 바레인 내 공군기지 등 미국 기지 내 드론 및 순항미사일 재고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
- 영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 미사일 기지 타격을 위한 미국의 英 군사 기지 사용을 공식 승인. 스타머 총리는 당초 법적 근거를 이유로 거부하였으나 이란의 동맹국 공격 이후 입장을 선화하였으며, 자국 내 전쟁 개입 반대 여론(59%)에도 불구하고 '집단적 자위권 차원의 방어적 작전'임을 강조
- IEA는 금번 사태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 규모를 하루 약 1,000만 배럴로 추산, 사상 최대 수준으로 평가.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급 차질이 4월말까지 지속될시 브렌트유가 배럴당 180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을 기본 시나리오로 전제(WSI)
- 자산운용사들의 ICE 브렌트유 순매수 포지션은 주간 기준 77,672계약 증가한 428,704계약으로, 6년여 만에 최대 강세 베팅 수준을 기록. ①이란의 호르무즈 협상 거부 보도 ②미 지상군 파병 준비설, ③카르그섬 장악 검토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투자 심리를 악화(Bloomberg, CBS)
- Reuters/Ipsos 여론조사에 따르면, 美 유권자의 약 3분의 2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지상전을 명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, 이를 지지하는 비율은 7%에 불과.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·이란 전쟁 장기화·유가 급등, 연준 통화정책 기대의 급격한 재조정 촉발

- 연준 금리인하 기대를 전제로 한 채권 트레이딩 전략이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무력화. 금일 트레이더들은 2026년 추가 완화 기대를 완전히 되돌렸으며, 10월까지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도 반영 시작
- Bloomberg는 이란 분쟁이 통화정책 기대의 급격한 재조정을 초래하고, 금융여건을 긴축시키며 S&P 500이 통제된 조정에서 본격적인 조정(full correction)으로 전환될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

■ 스페인, 이란 전쟁發 에너지 충격 대응 50억유로 규모 지원책 발표

- 스페인 정부는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50억유로(약 \$58억) 규모의 대책을 의회에 제출. 주요 내용은 ①전기요금 부가가치세(VAT) 10%로 인하 ②연료 가격 리터당 최대 30센트 인하 ③농업·운송 부문 대상 리터당 20센트 연료 보조금 지급

■ ECB 정책위원 나겔,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시 4월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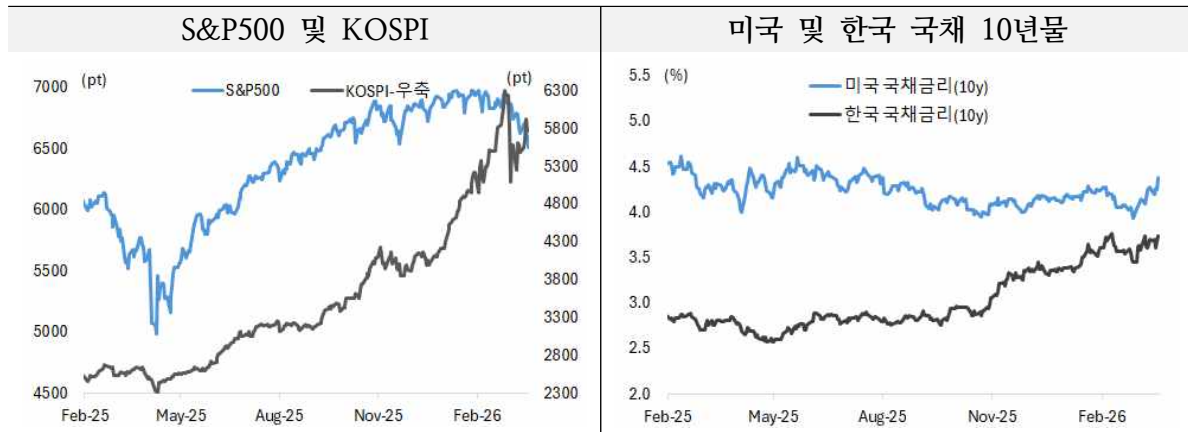
- 이란 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가 2% 목표를 상회할 조짐이 나타날 경우 ECB는 신속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. 우크라이나 전쟁 시 에너지 가격 급등이 광범위한 인플레로 이어진 전례가 있으며, 상승폭이 크고 지속 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전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

■ 이란, 금번 분쟁을 존립적 투쟁(existential struggle)으로 인식할 가능성

- 이란은 이번 분쟁을 체제 존망이 걸린 대립으로 규정. '25년 6월 이스라엘과의 전쟁 당시 이른 휴전 수용이 약점으로 인식되어 추가 공격을 자초했다는 판단 하에, 이번에는 선제적 타협 배제 방침(Chatham House)
- 재래식 전력 열세를 인정한 가운데 저비용 드론·호르무즈 봉쇄 등 비대칭 수단으로 전쟁 비용을 미국·이스라엘·역내국 전체에 전가하는 지구전 전략을 채택. 이란이 요구하는 종전 조건은 ①향후 군사 공격 불가 보장 ②제재 완화이며,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전쟁 종결 유인은 사실상 부재

■ 이라크 정부, 외국기업 운영 쏘 유전에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면책(force majeure)선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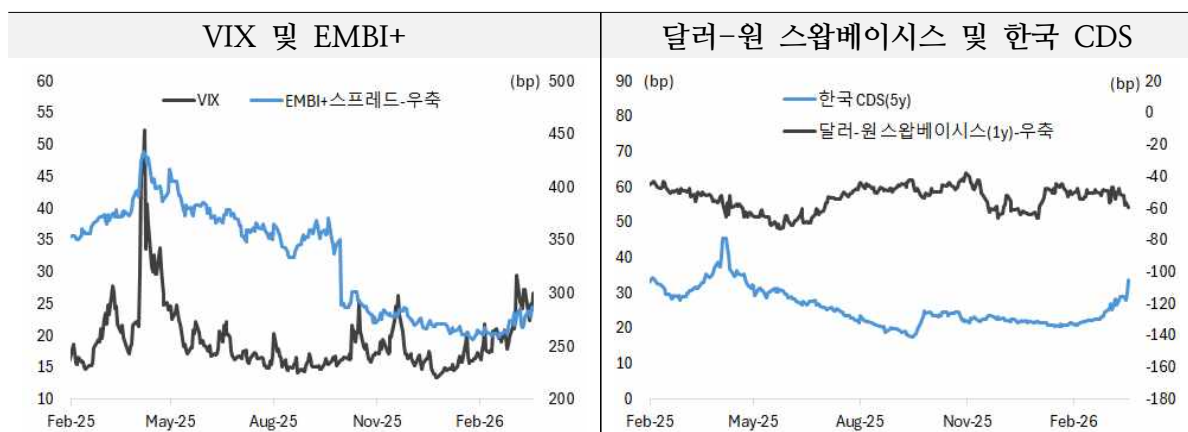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45, E-mail hwjoo@kcif.or.kr